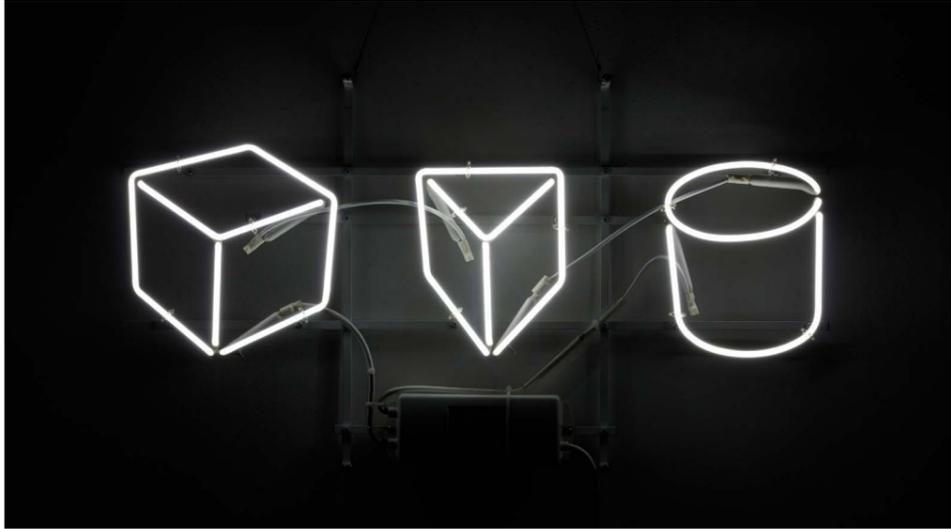


| PREVIEW |

윤가림 개인전 <세 가지 타입>
Kalim Yoon solo exhibition <Three types>

전시기간 | 2016. 4. 15 금 - 5. 5 목
오프닝 리셉션 | 2016. 4. 15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6. 4. 23 토 16시



◎ 전시소개

어린들이 가베를 가지고 놀면서 세상을 탐구하는 방식과 작가가 작업을 대하는 의도의 유사성의 발견이 이 시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결국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너무 무게 잡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 작가 노트 中 -

◎ 인터뷰

Q. 작업 설명 중에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시=작품'이라는 전제를 두는 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작품의 완성을 '전시'로 귀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생각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지난 전시들에서 보여준 제 작품들은 완결된 오브제의 성격이 강했으나 공간의 전체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작품의 느슨한 완결에 대한 호기심이 이번 전시에서 상반된 혹은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원, 삼각, 사각형 형태를 틀로서 제시합니다. 이 틀을 통해 한 가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랑한 반죽을 만들어 넣는 과정이 필요하고 관객들은 완성된 빵을 다시 뜯어 먹음으로 결과적으로 모순된 상황이 설정됩니다. 전시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과정의 경험들이 작품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시=작품'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번 전시에서 빵을 굽고 관객들에게 이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처럼 음식을 통한 예술행위는 종종 작가들이 선택했던 소통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만의 특별한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많은 작가들이 미술관을 다른 맥락을 가진 공간으로 바꾸거나 하는 시도로 미술 제도나 공간 권력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브제의 하나로서 빵이라는 매체를 택한 것이고 이는 접착을 전제로 한 조각적 오브제라는 점에서 이전 작업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안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오브제들은 인체의 일부와 사물로서의 작품 사이의 접착이 차지하는 의미에 주시했었습니다.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오브제라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으로의 접착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작업에서 선보였던 오브제적 형태들은 실용적인 듯 보이면서도 낯선 형태로 인해 공간 자체의 기묘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능성을 모호하게 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전 작업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나요?

A. 이전 작업들에서는 얼핏 보면 미니멀한 조각이나 가구 같으나 기존에 존재하는 형태를 살짝 왜곡하거나 변형함으로써 저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오브제로 탈바꿈시키는 트윌스트가 있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형태들을 차용하나 그 기능 혹은 목적을 비틀으로써 비일반적인 체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기하학적 요소를 도입한 작업 형식을 자신의 언어로서 어떤 식의 확장을 가져올지 흥미롭습니다.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얘기해주세요.

A. 본인은 기하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도형은 형태의 원질로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빵 틀에 반죽을 넣어 빵을 구워내는 것은 미술의 생산과정을, 관객이 빵을 먹어 소화시키는 것은 미술의 소비 과정을 은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를 골라 먹는다 해도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빵의 맛이나 질감 따위가 될 것입니다.

유영진 개인전 <히든 스테이지>
Yoo Youngjin solo exhibition <Hidden Stage>

전시기간 | 2016. 5. 13 금 - 6. 2 목
오프닝 리셉션 | 2016. 5. 13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6. 5. 21 토 16시



◎ 전시소개

나는 게임의 콘텐츠 중에서 숨겨져 있는 몬스터나 지역들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게임에 한 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크한 몬스터라든지 수수께끼 같은 루트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나에게서는 큰 즐거움이다.

- 작가 노트 中 -

◎ 인터뷰

Q. 전시 제목 <Hidden Stage>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전시 제목은 제가 작업을 할 때 취하는 태도를 생각해보고 결정했던 거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콘텐츠 안에는 숨겨진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쉽게 지나쳐버리고,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좀 더 예민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숨겨진 콘텐츠들이 주요한 즐거움을 쫓아가는 데에는 별 관계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마치 게임의 그것과 같다고 느꼈고 제목을 'Hidden Stage'라고 결정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의 특성에 반해, 작가님은 한 장소에서 찍은 여러 사진이 조합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NOWHERE 작업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던 장소를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저 공간을 가질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그냥 그 순간만을 촬영해서 사진으로 간직하는 것은 좀 성에 안 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풍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방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업으로 제 생각이나 시도들을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Q.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촬영 장소로 선택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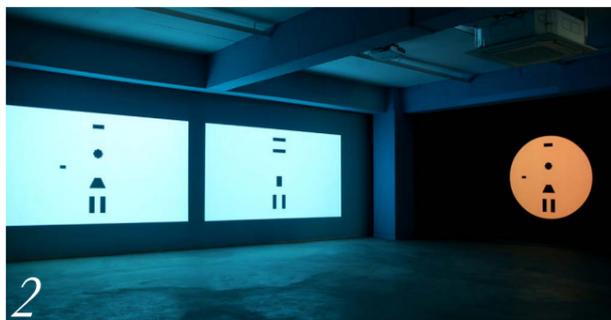
A.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NOWHERE 같은 경우에는 순전하게 제가 자주 찾던 장소를 골라서 촬영했습니다. 주로 외진 곳, 사람이 잘 안 와서 조용한 장소였던 거 같고요. 와봤자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The Wheathering 같은 경우에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지역이나,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지역을 골라서 촬영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별거 아닌 공간들이고, 그 장소중에서 어떤 작업과 잘 맞는 장소를 골라서 만드는 편인 거 같습니다.

Q. 다양한 시간대가 존재하는 이미지 내에서 색이 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작품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나요?

A. NOWHERE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명을 쓰거나 색을 넣거나 하지 않고, 그 당시의 그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빛들만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색을 바꾸거나 그런 작업은 거치지 않지만, 사진에서 합성할 부분들을 배치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색이 너무 화려한데, 어떤 것은 화려한 것에 비해서 칙칙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색을 더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장소에 잘 맞게, 그리고 제 마음에 들게 보이는 이미지로 만드는 편입니다.

| REVIEW with PHOTOS |

홍승혜 개인전 <나의 개러지 밴드>
Hong Seung-hye solo exhibition <My Garage Band>
2016. 3. 18 금 - 2016. 4. 7 목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푸른색과 전자음향은 우주를 연상시켰다. 춤을 추거나 혹은 체조를 하는 것 같은 사람 모형은 우주복을 입고 느리게 움직이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우주에서의 춤사위는 미스터리할 수 밖에 없었다. 푸름 속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스크린이 원으로 바뀌는 '연습3' 인데, 어두운 구석엔 밝은 갈색의 달이 있었다. 이처럼 달을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이다. 우주 한 가운데에 서서 달 표면의 무언가가 리듬에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1 | 오프닝 리셉션, 3월 18일
- 2 | 전시장 전경
- 3 | 아티스트 토크, 3월 26일

제7회 PT & Critic 변상환 개인전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Byun Sang-hwan solo exhibition <Pure, solid courage>
2016. 2. 17 수 - 2016. 3. 8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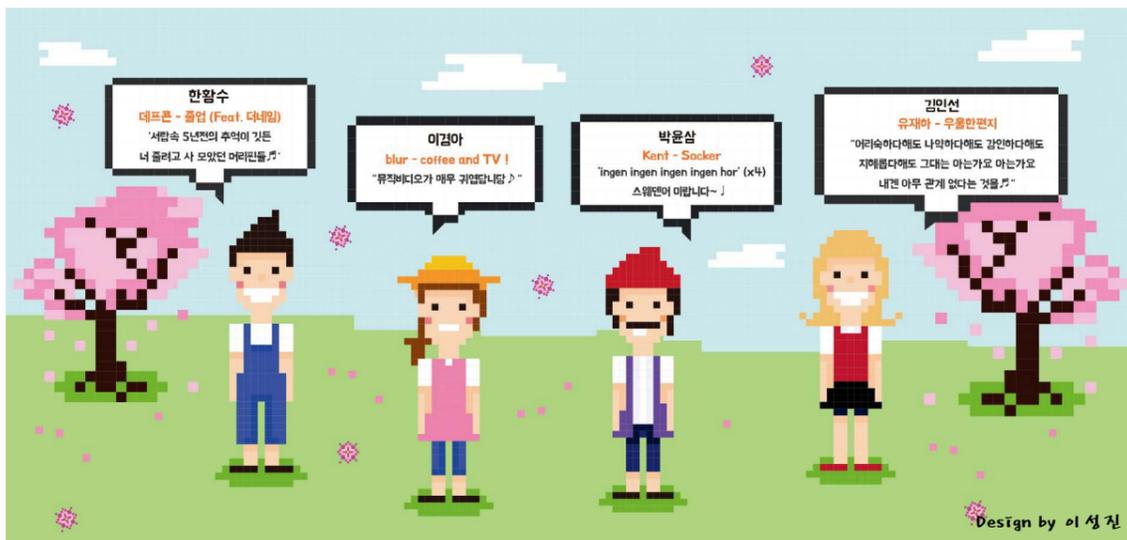


사실 그를 미워한 적도 있었다. 그가 약속한 시간에 몇 번 늦게 나타났기 때문은 아니다. 2천 5백kg의 모래를 마대자루에 옮겨 담고 2층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가 (포레의 젊은) 여성 관객에게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작품에 대해 설명해준다고 느껴서도 아니다. 작가가 나는 소화할 수 없는 패션 센스를 갖고 있어서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밉지 않다. 나는 변상환 작가가 좋다.

평소보다 조금 더웠던 날, 작가는 주시쿨(930mL/빙그레)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종이팩의 입구를 열어 우리에게도 권했지만 누구도 마시겠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모두 작가 본인의 몫이 되었는데 그는 음료를 컵에 따르지 않고 종이팩에 입을 대고 마셨다. 그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순간 작가의 취향이 마이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마시다 남긴 주시쿨은 전시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갤러리 냉장고 한쪽에 자리하고 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그와 그날을 상기시킨다. (글. 박윤삼 코디네이터)

- 1 | 전시장 전경
- 2 | PT&Critic 프로그램, 3월 6일

| 네가 불에 꼭 들어봤으면 해! |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강석호 작가가 Space bm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2016.3.17~4.17 까지.



박성호 작가가 감독한 영화 <불가항력>의 시사회가 3월 23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준 작가가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위치한 B-Space 레지던시에 입주해서 주셨습니다. (차오양구는 다산쯔798이 있는 쪽이라고 합니다.)



박진우 작가가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DNA>展에 참여합니다. 2.23 ~ 5.29 까지.

한성우 작가가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 10기로 입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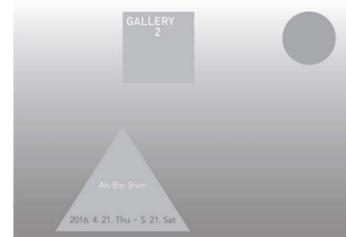
이윤호 작가가 구분장 여관 302호에서 <장소상실> 전시를 가졌습니다. 3.26~4.8 까지.

노은주 작가가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리는 전시에 기획자이자 작가로 참여합니다. 시각언어 뿐 아니라 글, 기획 등의 다른 미디어/형태 등에서의 '선택' 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27~6.26 까지.

이정형 작가가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 단체전을 가집니다. 전시 기간은 4.18~5.15 까지.

홍승혜 작가가 2016년 서울미디어 씨티의 참여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윤가림 작가가 한은갤러리의 <2016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시대의 젊은 작가들>에 선정되어 단체전에 참여합니다. 6.10~9.4 까지.



심아빈 작가가 gallery2에서 개인전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집니다. 4.21~5.21 까지.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혹독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로 인한 붓기 때문이라고 판단,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하여 5일 동안 디톡스 음료만을 섭취하였다. 그녀가 5일째 마지막 음료를 마신 뒤 성공 기념 야식으로 선택한 메뉴는 매운 짬뽕이었다.

박윤삼 코디네이터는 봄을 타고 있다. (봄철에 입맛이 없어지거나 몸이 나른해지고 파리해진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항상 마셔왔던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입에서 떼고 '라떼'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싸서 못 사먹는 우유 속 성분 섭취를 위함이라고 하는데..포르르..

이경아 인턴은 파스하고 화창한 봄날과는 어울리지 않게 영국의 몽환적이고 찌뿌드드한 노래와 프랑스의 우울한 영화를 즐겨 찾고 있다..포르르..

이신애 전 코디네이터는 친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25일 까지 프랑스에서 잠시 귀국한다.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윤삼, 이경아, 한황수
감수: 김인선
발행일: 2016년 4월 12일